

농촌인구의 특성과 그 변화, 1960~1995* : 인구구성 및 인구이동

김태현**

농촌사회의 당면한 문제는 농촌인구의 극소와 잔존인구의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왜곡에 서부터 저기되므로 농촌인구의 변화추세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 군부로의 전입과 전출 인구를 비교하여 최근 농촌으로의 인구회귀현상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농촌의 인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농촌마을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농촌으로 전입하는 인구의 영향을 밝혔고, 특성별 농촌마을의 장래를 예측하였다.

군부의 인구는 도시로의 인구전출이 지속되면서 젊은 연령층과 영유아의 인구구성비가 낮고 노인연령층이 두텁게 되었다. 산업화 이전단계인 1960년 군부의 0~4세 인구구성비는 시부보다 높았으나 농촌인구의 도시전출이 누적되면서 1975년부터 시부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1995년의 군부 0~4세 인구구성비가 6.2%로 5년 전보다 상승하여 시부와 차가 감소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시부에서 군부로 이동하는 인구의 연령별 구성에서 20~34세에 총어동인구의 51.8%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교육수준은 시부로의 전입 인구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농촌사회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수농촌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은군의 농촌마을과 원래 농업중심 마을이었으나 최근에 급속히 변하고 있는 파주군의 근교농촌마을의 인구구조를 비교한 결과 최근의 농촌인구구조의 변화와 젊은 연령층의 군부로 전입하는 현상은 일부 농촌, 특히 근교농촌의 변화에 의한 현상이지 전체 농촌인구현상의 변화라고 할 수 없었다. 이들 마을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마을 인구구조의 특성에서 우리는 산업화나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농촌마을은 거주민의 노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어 마을 자체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반면에 근교농촌마을은 농촌의 성격이 흐러지면서 도시화 내지 산업화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199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1. 서론

인구현상의 변화는 출생, 사망, 이동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인구변천 초기에는 사망의 감소에 따라 인구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출산수준의 감소로 인구변천은 마무리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어디까지나 폐쇄인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내의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경제개발과 함께 인구이동이 사회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 전후에 절정에 달했던 인구증가 속도가 정부의 노력과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개발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은 농촌의 과잉인구를 도시로 밀어 넣게 되고, 이들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경제발전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싼 노동력의 제공이라는 초기 산업화의 긍정적 효과는 있었으나 도시사회의 생활환경개선이 이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주택,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도시문제가 극심해진 1960년대를 지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에 대한 대책, 특히 서울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설정, 정부종합청사의 이전, 신도시의 건설 등 일련의 노력이 있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594-604). 그 결과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울인구는 1,000만명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서 억제정책의 효과를 얻고 있으나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인구증가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국 대도시(부산, 대구, 인천 등)와 그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출산수준이 대체수준을 하회하는 낮은 수준(IFR=1.7 내외)이면서 지속적인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농촌의 인구감소를 가속화시켰다. 인구이동이 없어도 낮아진 출산수준의 영향으로 인구의 증가는 정체를 벗어나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농촌의 젊은 연령층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출산수준을 더욱 낮춰서 인구구조 내지 인구규모의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구현상은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고, 가족의 존속을 어렵게 하는 등 지역사회 자체의 해체까지도 예상하게 한다(문옥표 외, 1993).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의 일부 젊은 층이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현상이 일

어나면서 농촌경제뿐만 아니라 농촌가족의 변화와 농촌사회 자체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으로의 젊은 연령층 인구의 회귀현상은 이들이 농촌사회에 직접 기여한다기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주거비 등의 부담으로 주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점(문옥표 외, 1993 참조)에서 농촌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농촌사회의 당면한 문제는 농촌인구의 극소와 잔존하는 인구의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왜곡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 연구는 농촌인구의 변화추세를 검토하여 농촌인구문제 발생의 원인과 그 과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농촌 이동인구의 특성을 분석하여 최근 농촌의 전입과 전출인구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회귀현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끝으로 현재 농촌의 인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실제조사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전입목적을 밝히고, 현존하는 농촌의 인구문제와 장래 농촌인구의 특성변화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다양하다. 1960년 이후 1990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하여 농촌인구의 변화를 정리하였으며,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를 이용하여 이동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1995년 자료로는 인구주택총조사 속보자료를 이용하였다. 근교농촌조사자료로는 서울북부의 마을조사(문옥표 외, 1993)를 이용하였으며, 순수농촌지역으로 충북 보은군의 마을조사(김태현 외, 1995)를 이용하였다.

2. 농촌인구구성의 변화, 1960~1995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 이후 우리 나라는 인구규모 자체의 증가와 지역간 많은 인구이동으로 인구현상의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인구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절대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농촌인구의 감소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의 규모보다는 지역간 즉,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분포에 따른 인구현상의 변화가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과 농촌지역 인구의 과소화현상은 지속적인 대도시의 인구집중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도시지역의 확대, 그리고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군부지역 인구의 자연증가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인구분야계획위원

회, 1991: 7)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 나라 도시화의 진전과 농촌의 인구관련 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면서 인구분포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인구이동이다. 인구이동은 최근 들어서는 대도시권의 형성과 함께 조금씩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아져서 인구이동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들이 권역 중심도시로서 역할이 강화되면서 서울보다 많은 인구를 지역내에서 흡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대도시나 시부로 집중되고 있다. <표1>은 도시와 농촌간 인구분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시부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에 28.0%에서 1990년에 74.4%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에도 계속 증가하여 시부인구가 총인구의 78.5%를 점하게 되었다. 반면에 군부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 각각 72.0%에서 25.6%로, 그리고 1995년에는 총인구의 21.5%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시부와 군부의 인구구성비의 변화는 1960년 이후 지속적이고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지만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은 최근으로 오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군부인구 구성비의 감소폭은 1960년대에 13.2%포인트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각각 16.1%포인트와 17.1%포인트로 증가하였다. 절대인구가 감소하면서 구성비의 감소폭이 더 커졌다는 것은 인구이동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5년간에 4.1%포인트 낮아져서 군부인구의 감소경향이 둔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총인구의 약 4분의 1로 낮아진 1990년의 군부인구가 다시 5분의 1 수준(1995년)으로 감소하는 과정의 차이이므로, 군부인구의 빠른 감소현상은 지

<표1> 시·군별 인구구성비의 변화(1960~1995)

(단위: %)

지역	1960	1970	1980	1990	1995
시부	28.0	41.2	57.3	74.4	78.5
군부	72.0	58.8	42.7	25.6	21.5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995년의 '시부와 군부'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된 것임.

자료: 경제기획원(각년도), <1960-198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통계청(1992),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

통계청(1996),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속보>.

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이면서도 큰 폭의 농촌인구 감소와 도시인구 증가의 주원인은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주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으로 설명된다(권태환, 1992: 41-42). 1960~85년의 25년 사이 군부인구의 감소 중 4분의 1은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인구이동에 따른 것이므로 인구이동이 인구분포의 지역간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주원인이 된다.

이러한 도농간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분포의 변화는 지역별 인구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구이동은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건강한 인구 중에서 선별적으로 일어나며, 성별로도 이동시기와 이동량의 차이가 있으므로(권태환 외, 1990: 167-169) 많은 인구이동이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인구의 편중현상이 심화된다. 특히 인구이동의 영향으로 인구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이동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경향이 기존인구의 구조에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크지 않으나, 그 반대의 경우인 우리 나라 군부와 같이 절대인구 규모가 극소화되는 시점에서 연령, 성 등에서 동일 특성을 가진 인구의 지속적인 전출은 잔여인구의 특성상 구조의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농촌인구의 전출에 따라 나타나는 잔류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화를 연령, 성 및 혼인상태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지난 35년간 군부의 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물론 출산수준의 감소와 사망률의 저하에 따른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

〈표2〉 군부 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1960~1995)

연령	196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0-14	41.3	45.1	40.8	35.7	30.4	23.6	20.4
0-4	14.7	14.4	12.0	9.5	8.3	5.8	6.2
5-14	26.6	30.6	28.8	26.2	22.1	17.8	14.2
15-64	54.5	50.8	54.6	58.7	62.7	67.3	67.7
15-24	17.8	14.8	18.0	19.4	19.1	19.6	15.9
25-44	23.4	22.4	22.4	22.5	24.1	25.6	27.2
45-64	13.3	13.6	14.2	16.8	19.5	22.2	24.6
65+	4.2	4.2	4.6	5.6	6.8	9.0	11.9

자료: 경제기획원(각년도), 〈1960-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통계청(1992),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

통계청(1996),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속보〉.

타나지만, 농촌의 경우 도시로 인구전출이 지속되면서 젊은 연령층과 영유아의 인구구성비가 낮고 노인연령층이 두텁게 된다. 0-14세 인구가 1970년에 총인구의 45.1%에 도달한 이래 출산수준의 감소와 20-30대 인구의 전출에 따른 농촌 출생아수의 감소, 그리고 10대의 교육을 위한 전출로 구성비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어 1975년에는 40.8%로 낮아진 후 10년 후인 1985년에 30.4%, 다시 10년 후인 1995년에 20.4%로 되었으며 앞으로 20%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생산연령계층인 15-64세의 경우 1970년의 50.8%를 저점으로 그 후 1990년에 67% 수준으로 상승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5-24세의 인구구성비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빠른 감소가 이루어지고, 5-14세 인구의 극소로 앞으로 계속 이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반면에 45-64세의 인구구성비가 1995년에 24.6%로 최고에 도달하였으며, 이 인구는 앞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로 이전될 것이므로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는 67%를 정점으로 하고 가까운 시기에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인 65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구성비는 1970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 즉, 1970년대에는 1.4%포인트의 증가에 그쳤으나 1980년대에는 3.4%포인트, 그리고 1990년대 상반기 5년간에 2.9%포인트나 늘어났다. 현재 45-64세 연령층의 인구가 비대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는 앞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표2〉에서 나타난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진 0-4세 인구나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를 시부의 경우와 비교하여 〈표3〉에 정리하였다.

산업화 초기단계의 전통적인 농촌사회가 유지되던 1960년대에는 군부의 0-4세 인구구성비(14.7-14.4%)가 시부의 구성비(13.1-12.8%)보다 1.6%포인트나 높았으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농촌인구의 도시전출이 누적되면서 1975년부터 군부의 0-4세 인구구성비가 시부보다 낮아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1990년까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1995년의 군부 0-4세 인구구성비가 6.2%로 5년 전보다 상승하여 동일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시부와 차가 2.0%포인트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1980년대에 출산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의료비의 전액을 지원하던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개인부담으로 바뀐에 따라 출산수준이 일부 상승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시부의 구성비는 5년 전(1990년)과 동일수준이었으나 군부의 경우 오히려 증가한 것은 전체적인 출산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최근 젊은 연

〈표3〉 시부와 군부의 연령(0~4세 및 65세 이상)별 인구구성비의 비교
(1960~1995) (단위: %)

연도	0-4세			65세 이상		
	시부(A)	군부(B)	차(A-B)	시부(A)	군부(B)	차(A-B)
1960	13.1	14.7	-1.6	2.5	4.2	-1.7
1970	12.8	14.4	-1.6	2.1	4.2	-2.1
1975	12.3	12.0	0.3	2.3	4.6	-2.3
1980	10.6	9.5	1.1	2.6	5.6	-3.0
1985	9.6	8.3	1.3	3.0	6.8	-3.8
1990	8.2	5.8	2.4	3.6	9.0	-5.4
1995	8.2	6.2	2.0	4.4	11.9	-7.5

주: 1) 구성비는 지역별 인구에 대한 구성비임.

2) 1995년의 '시부와 군부'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된 것임.

자료: 〈표2〉의 '자료' 참조.

령층이 제한된 구역이기는 하지만 농촌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지면서(한영자, 1991; 김태현, 1993a 참조) 영유아의 인구가 부분적으로 증가한 결과이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우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수준 감소에 따른 영유아 인구의 극소로 시부와 군부에서 모두 그 구성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군부 노인인구의 구성비 증가는 더욱 빨라져서 시부와 군부의 구성비의 차는 1960년의 1.7% 포인트에서 1995년에 7.5%포인트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논의한 것과 같이 앞으로 군부의 노인인구 구성비가 계속 상승할 것이며, 군부의 노령화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성비의 변화는 출생시의 성선별 출산이 가능한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고, 노인의 경우 사망률과 인구이동의 성별 차이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비의 변화가 뚜렷해진다. 군부의 성비변화를 시부의 성비와 비교하여 〈표4〉에 정리하였다.

0-4세 인구의 성비는 1960년에 10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1-2포인트 증가한 107 전후의 수준을 시부에서는 1980년까지, 군부에서는 1985년까지 유지하였다. 그러나 시부에서는 1985년의 성비(108.6)가 108을 상회한 후 1990년에는 111.4로, 1995년에는 114.2까지 높아졌다. 한편 군부에서는 시부보다 늦은 1990년에 110.5를 기록하였으며, 1995년에는 시부보다 1.9포인트나 높은 116.1을 기록하고 있다.

〈표4〉 지역 및 연령(0~4세 및 65세 이상)별 성비의 변화(1960~1995)

연도	0-4세			65세 이상		
	시부(A)	군부(B)	차(A-B)	시부(A)	군부(B)	차(A-B)
1960	105.5	105.2	0.3	54.2	70.9	-16.7
1970	107.1	106.6	0.5	49.2	67.0	-17.8
1975	107.5	107.4	0.1	50.7	66.7	-16.0
1980	107.6	106.8	0.8	50.3	65.7	-15.4
1985	108.6	106.7	1.9	52.0	66.2	-14.2
1990	111.4	110.5	0.9	54.6	66.7	-12.1
1995	114.2	116.1	-1.9	55.7	64.0	-8.3

주: 1995년의 '시부와 군부'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된 것임.
 자료: 〈표2〉의 '자료' 참조.

출생아의 성비가 높아지는 현상은 태아에 대한 성감별에 따라 여아에 대한 인공 임신중절이 확산되면서 1985년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상자녀수는 2명 전후까지 낮아졌지만 남아에 대한 강한 선호현상이 변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감별에 의한 남아선별 출산이 가능해지면서 의학적 자문이 용이한 시부에서부터 성비가 높아졌다. 성감별과 성비의 왜곡현상에 따른 사회·윤리적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성감별을 규제하는 의료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이 1987년과 1990년에 각각 개정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었으나 그 후에도 성비의 상승은 이어졌다(김태현, 1995: 18-59). 그러나 1990년까지 시부의 성비가 높았으나 1995년에는 군부의 성비가 더 높아졌다. 이것은 성감별에 대한 행정규제가 강화된 후 그 영향이 도시에서 일부 나타나면서 성비의 상승정도가 군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둔화된 현상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행정규제의 적용정도에 따라 성비의 상승은 둔화 내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군부의 상승한 성비가 도시의 변화와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비변화는 지역간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부의 성비는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5년에 55.7에 이르렀으나 군부의 경우는 1960년에 73.9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성비가 66-67 정도에 머물렀다가 1995년에 64.0으로 낮아졌다. 그러므로 시부와 군부에서 65세 이상 노

인의 성비의 차이는 계속 감소하여 1970년의 17.8포인트에서 1990년에는 8.3포인트로 낮아졌다.

시부의 성비가 군부에 비하여 극히 낮은 것은 65세 이상 인구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에서는 할머니들의 역할이 더 많으므로 군부의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이 시부로 이동이 많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김태현, 1993a: 79-81). 또한 시부의 성비는 군부와는 달리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시부인구에서 과거에 생산연령(15-64세)의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계층으로 이동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낮은 연령(예, 65-69세)의 인구가 비대해지면서 시부의 성비가 계속 높아진다고 하겠다. 그리고 군부의 경우는 할머니들의 도시전출로 높은 성비를 기록하고 있지만 65세 미만의 생산연령층 자체가 시부에 비하여 적으므로 군부의 노인성비는 크게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없다.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는 혼인에 영향을 미친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난 여자들의 결혼시기인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여자 20-24세 인구 100명당 남자 25-29세 인구비인 결혼 적령기의 성비가 현저하게 낮아져서 1980년에는 전국 평균이 77.6으로 극소현상을 보였다(김태현, 1993b). 이것은 결혼 적령기의 여자인구가 남자보다 20% 이상 많아서 적기에 결혼 상대를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결혼에 유리한 남자의 결혼연령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반면에 불리한 여자의 결혼연령은 급속히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의 성비가 75.7에 머무르고 있는 시부에서 더욱 뚜렷하였

<표5> 결혼 적령기(남자 25~29세, 여자 20~24세)의 성비추이(1970~1990)

연도	전국	시부(A)	군부(B)	차(A-B)
1970	89.6	84.9	92.9	-8.0
1975	84.2	79.8	88.3	-8.5
1980	77.6	75.7	80.1	-4.4
1985	98.4	93.7	107.3	-13.6
1990	103.3	100.9	114.3	-13.4
1995	100.9	99.0	111.5	-12.5

주: 1995년의 '시부와 군부'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된 것임.

자료: <표2>의 '자료' 참조.

다. 그러나 시부에서 성비의 불균형현상은 1985년부터 없어졌지만 젊은 여자인구의 도시집중으로 1985년 이후에는 군부에서 성비가 100을 훨씬 넘는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1985년 이후 군부 남자의 초혼연령의 상승폭이 커져서 시부의 남자 초혼연령보다 높아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권태환 외, 1995: 제1부 참조).

1980년까지 군부의 결혼 적령기 성비가 시부보다 4-8포인트 정도 높았지만 1985년부터는 13포인트 내외로 크게 앞서고 있다. 이것은 군부의 인구가 총인구의 3분의 1 이하로 낮아져서 노령화되었으면서도 계속 도시로의 진출이 지속된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도시에서 단순노동력이 필요한 업종이나 서비스업종의 취업이 여성들에게 유리하고 농촌에서의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힘든 농사일과 가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농촌여자들의 의식이 강해지면서 농촌의 젊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많이 도시로 진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김태현, 1993b). 이것은 결혼연령에도 영향을 주어서 1985년 이후 군부 남자의 결혼연령이 시부 남자보다 높아졌다.

농촌에서 성·연령별 이동의 차이는 결혼 적령기의 성비불균형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미혼율의 증가가 빨라졌다. 그리고 40대 유배우율의 변화도 뚜렷하였다.

결혼 적령기를 바로 지난 연령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34세의 미혼율을 지역 및 성별로 <표6>에 정리하였다. 남자의 경우 시부의 미혼율이 1985년까지 7-9%를 유지하였으나 군부에서는 3.2%(1960-66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에는 시부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며, 그 후에는 시부의 미혼율보다 군부의 미혼율이 높아졌으며, 그 정도가 더욱 커졌다. 특히 1985년 이후 군부 남자의 미혼율의 상승폭이 큰 것은 이때의 결혼 적령기 성비가 110 이상의 높은 수준(<표5> 참조)을 유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자의 경우 최근으로 오면서 미혼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시부와 군부의 차이는 남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도 극소하였다.

도시와 농촌간에는 유배우율의 차이의 변화도 명확하였다. <표6>에서 40-44세의 남자 유배우율은 1980년까지 시부와 군부 모두 97-98%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1985년 이후에는 양지역 모두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군부의 유배우율의 감소폭이 더 컸다. 이것도 초혼연령의 상승과 재혼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표6〉 지역 및 성별 미혼율(30~34세) 및 유배우율(40~44세)(1950~1960) (단위: %)

연도	미혼율(30~34세)						유배우율(40~44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시부	군부	차	시부	군부	차	시부	군부	차	시부	군부	차
1960	7.8	3.2	4.5	1.2	0.3	0.9	97.8	97.5	0.3	81.2	85.0	-3.8
1966	8.8	3.2	5.6	2.0	0.4	1.6	97.5	97.5	0.0	80.1	84.1	-4.0
1970	8.3	4.7	3.6	2.3	0.7	1.6	97.3	97.6	-0.3	81.9	86.7	-4.8
1975	7.9	5.7	2.2	2.9	1.0	1.9	97.9	97.7	0.0	86.2	89.9	-3.7
1980	7.3	7.2	0.1	3.3	1.6	1.7	97.6	97.0	0.6	88.7	91.7	-3.0
1985	9.2	10.0	-0.8	4.9	2.6	2.3	97.1	96.0	1.1	89.8	91.7	-1.9
1990	13.0	17.6	-4.6	5.6	4.1	1.5	96.1	94.0	2.1	90.2	91.0	-0.8
1995	18.7	22.2	-3.5	6.8	4.6	2.2	94.1	91.8	2.3	89.9	91.0	-1.1

주: 1995년의 '시부와 군부'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된 것임.
 자료: 〈표2〉의 '자료' 참조.

할 수 있다. 한편, 여자의 경우는 한국전쟁 때 배우자를 사별한 연령층이 이어지는 1970-75년경까지 40-44세 여자의 유배우율이 계속 높아졌으며, 그 후에는 군부의 경우 91%, 시부에서는 9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농촌 이동인구의 특성

지역간 이동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를 이용하였다. 대도시, 기타시부, 군부 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 1990년 전수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이동자의 특성을 성·연령, 교육정도, 혼인 상태별로 살펴보았다.

1) 성 및 연령

이동인구는 남·녀 모두의 경우 15-29세 사이의 연령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간에 각각 연령별 선택성을 보여 왔다(권태환, 1992: 43-46).

충북의 경우를 예로 들 때, 남자의 경우 1970년대 전반까지는 15-19세에서 이동이 가장 활발하였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활발한 이동자의 연령층이 25-29세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 1970년대에는 15-19세의 연령층이 가장 많았으나, 197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연령층이 20-24세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1980년대 후반에는 20-24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김태현·이창송, 1995: 107). 이러한 성·연령별 인구이동의 차이는 농촌에서 결혼 적령기 성비 불균형문제, 노인인구의 과다문제, 생산가능 연령의 부족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동자의 성·연령별 구성비가 <표7>에 제시되어 있다. 이동자의 대부분이 15-34세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군부에서 대도시로 이동한 연령층의 경우 남자는 25-29세(10.2%)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자는 20-24세(11.3%)가 가장 많다. 연령별 남·녀간의 차이를 보면, 20-24세 연령층은 여자가 4.8%포인트가 많은 반면에, 25-29세 연령층은 남자가 1.9%포인트가 많다. 두 연령계층을 합할 경우, 여자 이동자의 구성비가 남자에 비하여 높다. 군부에서 시부로 이동한 연령층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주로 젊은 연령층, 특히 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부에서 군부로 이동한 연령층은 주로 20-34세이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다. 시부로 이동한 연령층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특징은 이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이 25-29세로 차이가 없으나, 다음으로 많이 이동한 연령층이 30-34세라는 점이며, 이후 대부분의 연령계층에서 시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아 가장 많이 군부로 이동한 연령층은, 남자가 30-34세(9.6%)이고, 여자는 25-29세(14.4%)로 시부로 이동한 이동자에 비하여 남녀 모두 5세 정도 늦어졌으며, 여전히 여자가 많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군간의 비교를 통하여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은 시부에서 군부로 이동한 연령층 중 5-9세와 40대와 50대의 구성비이다. 5-9세의 경우, 군부에서 시부로 이동한 구성비에 비하여 시부에서 군부로 이동한 구성비가 2.3-3.1%포인트나 높다. 이는 30대 이후 결혼한 연령층이 가족과 함께 군부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한편, 60대 후반 이후에는 도시로 이동하는 구성비가 군부로 이동하는 구성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의 구성비가 2배 가량 높다. 이는 대부분 배우자의 사별 후 자녀가족과 합치는 경우이다.

〈표7〉 이동자의 성·연령(5세 계급)별 인구구성비(1990) (단위: %)

연령	군→시								
	대도시			시			시→군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5-9	4.6	4.0	8.6	4.7	4.7	9.4	6.2	5.6	11.7
10-14	4.6	4.1	8.7	4.2	4.0	8.2	2.6	2.7	5.3
15-19	6.4	7.4	13.8	7.9	7.0	14.9	2.4	2.3	4.7
20-24	6.5	11.3	17.8	5.8	9.2	15.0	3.9	6.7	10.6
25-29	10.2	8.3	18.5	9.9	9.2	19.1	8.8	14.4	23.2
30-34	6.1	5.1	11.2	7.0	5.8	12.8	9.6	8.4	18.0
35-39	3.2	3.1	6.3	3.9	3.1	6.9	5.1	3.3	8.4
40-44	2.3	2.0	4.3	2.3	1.5	3.8	2.4	1.5	3.9
45-49	1.2	1.1	2.3	1.2	1.2	2.4	1.9	1.4	3.4
50-54	0.9	1.1	2.0	0.9	0.9	1.8	1.6	1.5	3.1
55-59	0.6	1.1	1.7	0.5	0.9	1.5	1.1	1.3	2.4
60-64	0.4	1.1	1.6	0.4	0.9	1.3	0.9	1.1	2.0
65-69	0.4	1.1	1.5	0.4	0.9	1.3	0.6	0.9	1.4
70-74	0.2	0.6	0.8	0.2	0.7	0.9	0.3	0.7	1.0
75-79	0.2	0.3	0.5	0.1	0.4	0.5	0.2	0.4	0.6
80-84	0.1	0.2	0.3	0.1	0.2	0.2	0.1	0.1	0.2
85+	0.0	0.1	0.1	0.0	0.1	0.1	0.0	0.1	0.1
계	48.0	52.0	100.0	49.4	50.6	100.0	47.6	52.4	100.0

자료: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원자료.

이동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약간 많았으며, 남자의 연령보다 여자의 연령층이 5세가 늦었다. 시부에서 군부로 이동한 사람의 연령층도 군부에서 시부로 이동한 사람의 연령층보다 5세가 늦었으며, 특히, 5-9세와 40대와 50대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동자의 연령별 인구구조는 현재 15-24세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구성비가 높기 때문에 도시는 젊은 연령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농촌은 30대 이후 도시에서 이동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장년층 이상의 연령층 특히, 노년층의 인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장년층의 구성비가 낮기 때문

에 유소년층의 구성비가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각종 농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성별로 보아 이동자는 젊은 연령층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여자의 경우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기는 하지만, 20~29세의 경우는 여자가 남자보다 농촌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점차 30대 이후의 장년층이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이동하는 귀환이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장년층이나 20대 여자가 군부로 이주하는 현상은 농촌의 인구구조의 문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러한 인구이동은 대도시 주변의 군부(특히 서울 근교지역)로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김태헌, 1993a)이므로 실제로 순수농촌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김태헌·이창송, 1996).

2) 교육정도 및 혼인상태

일반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쉬운 계층은 이동지역에서 취업이 용이하고, 사회이동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단위의 이동보다는 개인의 경우 이동이 활발하며 가족단위일 때에는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이동이 쉽다. 가장 이동이 활발한 연령계층인 25~44세 이동인구의 성별 교육정도와 혼인상태를 지역별로 비교하였다(〈표8〉 참조).

25~44세 이동인구의 교육정도는 지역에 관계없이 남자의 경우 고졸 이상이 전체의 76.7%(시→군)에서 79.5%(군→시)로 약 80%나 되었으며, 여자의 경우도 60%를 상회하였다. 1990년도 15세 이상 전국인구 중 고졸 이상이 남자의 경우 29%, 여자는 21%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동자의 학력이 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부인구의 학력이 군부인구에 비하여 높은 상황에서 이동자의 학력이 지역에 관계 없이 높았으며, 오히려 군부로 전입한 이동인구의 학력이 남녀 모두 가장 높았다.

한편 이동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의 지역별 비교에서도 시부로의 이동인구나 군부로의 이동인구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군부로의 이동인구에는 유배우의 구성비(81.8%)가 특히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는 미혼자(9.9%)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교육정도가 낮고, 미혼율이 낮은 군부로의 이동인구는 반대로 교육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자의 경우 미혼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이동인구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한 지역에서 전출인구는

〈표8〉 이동방향별 이동인구의 교육정도 및 혼인상태, 25~44세(1990)

1) 교육정도

구분	계	남자				여자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군→대도시	100.0	6.1	14.8	49.0	30.0	13.9	25.1	48.0	12.6
군→시	100.0	6.1	14.4	52.5	27.0	13.1	25.7	50.6	10.5
시→군	100.0	7.3	16.0	44.4	32.3	9.6	24.4	49.4	16.9

2) 혼인상태

구분	계	남자				여자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군→대도시	100.0	28.9	70.0	0.4	0.8	8.1	87.9	2.7	1.3
군→시	100.0	22.9	76.3	0.4	0.4	6.3	90.3	2.5	0.8
시→군	100.0	17.3	81.8	0.3	0.6	9.9	87.7	1.2	1.2

자료 :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원자료.

그 지역에서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므로 상대적으로 교육정도가 낮은 군부에서 전출하는 인구의 교육수준은 군부의 인구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지만 시부인구에 비하여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시부에서 군부로 이동하는 인구는 시부인구의 평균 교육정도보다 높기 때문에 군부 전출인구의 교육정도보다 높을 수 있다고 하겠다. 군부로 전입한 여자인구 중 미혼자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대도시지역 주변 군지역이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개발(특히 수도권)됨에 따라 대도시내의 중산층인 중간연령계층의 인구가 직장과 거리는 멀어지더라도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아 이주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군부로 전입하는 인구의 평균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었으며, 미혼여성의 경우 신도시개발과 함께 늘어나는 서비스업종이나 공장에 취업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출신자로 도시로 이동하였다가 농촌으로 회귀하는 경우는 교육정도가 낮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므로 도시적응이 어려운 경우이지만(변용찬, 1991: 105-106), 〈표8〉에서 시부에서 군부로 이동한 인구의 교육정도가 높고, 미혼율이 높은 것은 농촌출신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기 위한 군부로의 이동이라기 보다는 근교농촌이나 신규개발지역과 같은 곳으로 생활의 편의를 위해 이동하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은 일부 군부지역에 전입인구가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대부분 농촌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에서 인구전입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오히려 전출이 계속 이루어지므로 농촌사회 자체의 문제는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직접 검토하기 위하여 근교농촌과 순수농촌의 가구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장에서 분석하였다.

4. 농촌지역 주거실태조사결과

최근 군부인구의 특성이 변하고 있다. 0~4세 인구의 구성비가 높아지고 있으며 (<표1> 참조), 성비는 도시지역보다 높아졌다(<표3> 참조). 시부에서 군부로 이동한 인구 중 5~9세, 25~29세, 30~34세 등과 같이 젊은 연령층의 전입이 두드러지게 많아졌으며(<표6> 참조), 군부 전입자의 교육수준이 시부로 전입한 인구보다 남녀 모두 높았다(<표8> 참조).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종래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연령층의 인구는 도시로 전출하고 농촌에는 노인인구 중심사회로 변한다는 일반적 현상과 상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으로 전입자는 농촌출신이거나 도시에서 적응이 어려워 농촌으로 귀환하는 경우이므로 도시로 전출인구에 비하여 학력이 낮았고, 연령도 비교적 다양하였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므로 농촌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여 지역별 인구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군부인구의 특성 변화를 설명하였다.

1) 연구방법

농촌인구의 전출로 발생하는 농촌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순수한 농촌마을을 선택하여 마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촌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충북 보은군의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조사대상지역은 고속도로와 가깝지 않으며, 이 지역이 속해 있는 군이 시와 접해 있지 않으므로 농촌의 특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산업이 농업이고, 논과 밭의 비중이 비슷한 지역이므로 농촌사회의 현황과 변화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보은군의 2개 마을 182가구 중에서 조사가 가능한 150가구를 조사하였다.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는 주로 장기 부재이거나 거주 미상인 경우와 응답 거부와 불능 등이었다. 이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농촌인구의 성·연령별 특징을 분석하고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특성으로 혼인상태와 교육정도의 연령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순수농촌의 특성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근교농촌의 실태자료를 비교자료로 활용하였다. 1992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대도시 근교농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위하여 실시한 근교농촌조사결과(문옥표 외, 1993)에서 나타난 최근 근교농촌이 변화하는 특성을 순수농촌의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농촌의 변화와 최근 군부인구의 특성변화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근교농촌조사의 조사대상지역은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경기도 파주군의 한 마을이며, 이 마을은 1970년대까지 순수농촌마을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울과 서울 이남지역의 지가가 급등하면서 소규모 공장이 들어오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증가하면서 마을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었다. 조사지역의 총가구수는 180가구였으나 그 중 조사가 불가능한 29가구를 제외하고 151가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2) 조사지역의 인구 및 가구추이

조사지역의 인구와 가구추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변화가 반대로 나타났다 (<표9> 참조). 원래 두 지역은 순수농촌지역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녔다. 그러나 보은군의 조사지역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도시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파주군의 조사지역인구는 80년대 초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그 후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보은군의 마을인구는 1986년의 842명에서 1994년에 661명으로 8년 사이에 21.5%나 감소하였으나 가구수는 같은 기간에 16가구(7.5%)만 감소하였다. 가구수의 변화는 작으면서 인구의 감소가 큰 것은 가구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가구원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즉, 농촌에 부모들은 그대로 거주하기 때문에 가구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가구원인 자녀들은 결혼하여 타지역으로 분가하거나, 취업과 학업 등의 이유로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표9〉 보은군과 파주군 조사지역의 인구 및 가구수의 추이

연도	보은군 순수농촌마을				연도	파주군 근교농촌마을			
	인구			가구		인구			가구
	계	남	여			계	남	여	
1986	842	427	415	213	1979	782	396	386	155
1991	729	388	341	206	1984	722	373	349	156
1992	716	351	365	205	1989	849	439	410	209
1994	661	324	327	197	1991	940	499	441	220

자료: 1) 보은군 마을: 각 연도별 보은군 통계연보, 1987, 1992 및 1993.
 1994년 자료는 1994. 12. 31 현재 주민등록인구임.
 2) 파주군 마을: 각 연도별 파주군 통계연보, 1980, 1985 및 1990.
 1991년 자료는 상주인구조사결과임.

그러나 근교농촌인 파주군의 조사지역 인구와 가구수의 변화는 보은군의 농촌마을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다. 1979년부터 1984년간에 가구는 오히려 1가구 늘었으나 인구는 60명(7.7%)이 감소한 것은 농촌마을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후는 1991년까지 7년간에 인구는 30.2% 증가하였으며, 가구수는 41.0%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인구와 가구수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근교지역으로서 농촌의 기능이 변하고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거나 공장전입에 따른 산업지역으로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증가보다 가구수의 증가폭이 큰 것은 농업중심이던 원거주민의 경우 자녀들의 전출과 노부모의 잔류에 따른 전형적인 농촌인구 변화와 도시나 주변지역에서 소규모 가구의 전입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문옥표 외, 1993 참조).

이와 같이 농촌의 특성을 순수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구의 성·연령별 구조는 도시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근교농촌의 인구구조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인구학적 특성인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농촌인구현상의 2가지 측면을 다음에 분석하였다.

3) 조사지역 인구특성의 비교

우리 나라 총인구의 성·연령별 인구구조는 1960년대까지 전형적인 피라미드 모

양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후 출산억제정책의 성공으로 출생아수가 정체 내지 감소하게 되어 1990년의 인구피라미드에서는 25세 미만의 연령별 인구구성비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인구분야계획위원회, 1991: 2 참조). 이와 같은 인구구조는 인구이동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만 출산과 사망수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구조는 출산과 사망수준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시로의 전출에 따른 인구이동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김태현, 1993a: 73). 농촌사회에서 인구이동은 주로 10대 후반부터 20대의 젊은 연령에서 이루어지며, 남자보다 도시에서 단순직이나 서비스직의 취업이 쉬운 여자가 먼저 도시로 전출하게 된다(〈표7〉 참조). 그러므로 전형적인 농촌의 인구구조는 20~30대의 인구가 극소하고 5~19세의 청소년층과 50대 이후 노령층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20세 전후의 연령계층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권태환, 1992: 44~46 참조). 이에 따라 신규노동력의 부족과 인구의 노령화, 결혼 적령기 성비의 불균형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김태현, 1993a; 1995).

보은군의 농촌마을은 농촌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지역으로, 성·연령별 인구구조는 농촌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표10〉과 〈그림1〉 참조). 연령별로 볼 때, 유소년(0~14세) 인구는 11.5%였으며, 노년(65세 이상) 인구는 26.3%나 되었다. 이것은 1995년 전국 군부의 0~14세와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각각 20.4%와 11.9%(〈표2〉 참조)인 것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인구구성비는 각각 2.0%에 불과하므로 주로 젊은 연령층이 도시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조사지역의 연령별 인구구조는 유소년층의 과소, 청장년층의 과소, 노년층의 과다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농촌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소년층의 과소현상은 임신 가능한 20대와 30대 여자 연령층의 극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5~29세와 30~34세의 여자 인구구성비가 각각 0.7%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구구성비가 10%를 넘는 연령층은 55세 이후의 연령층들뿐이며,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은 3% 미만으로 낮은 수준인데 이것은 주로 도시로의 이동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 대도시 근교농촌인 파주군의 조사마을 인구의 구조는 같은 농촌마을이면서도 보은군의 조사마을과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0~4세 인구가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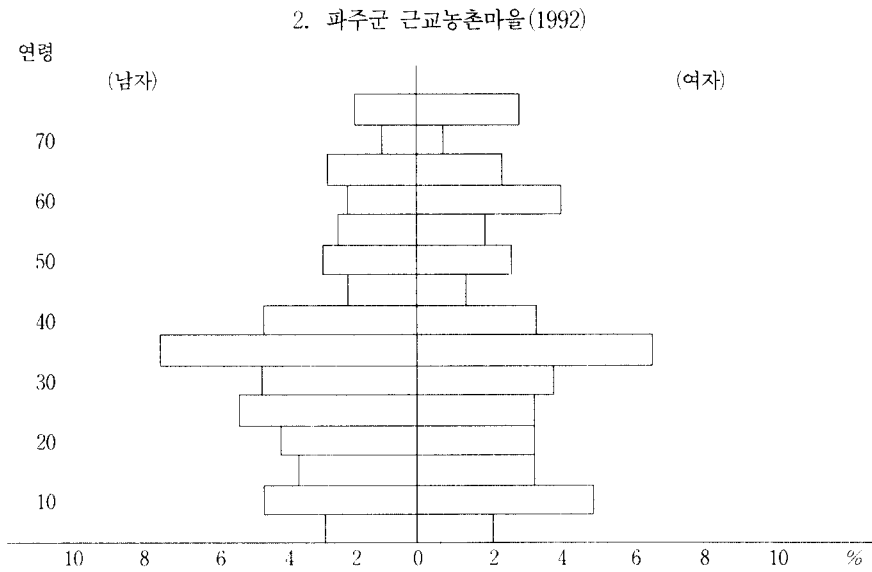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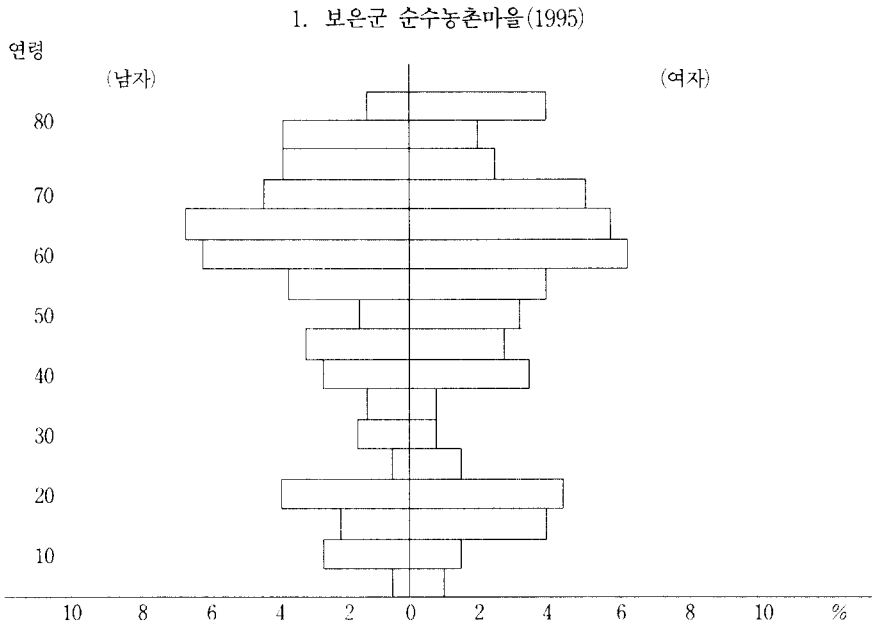
로 1995년 전국농촌의 평균수준(6.2%)에 가깝고, 0-14세 인구구성비는 21.6%로 1995년의 전국 농촌수준(20.4%)보다 오히려 높았다. 또한 20대(17.2%)와 30대(22.2%)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농촌이라기보다는 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그 지역의 인구구조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 특히 농촌의 젊은 연령층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지역 인구구조의 특징이다.

〈표10〉 보은군과 파주군의 조사지역별 연령 및 성별 인구구성비 및 성비

연령	보은군 순수농촌마을(1995)				파주군 근교농촌마을(1993)			
	계	남	여	성비	계	남	여	성비
0-4	6(1.5)	2(0.5)	4(1.0)	50	29(5.1)	16(2.8)	13(2.3)	123
5-9	16(4.0)	10(2.5)	6(1.5)	167	53(9.4)	25(4.4)	28(5.0)	89
10-14	24(6.0)	8(2.0)	16(4.0)	50	40(7.1)	19(3.4)	21(3.7)	90
15-19	32(8.0)	15(3.7)	17(4.2)	88	43(7.6)	22(3.9)	21(3.7)	105
20-24	8(2.0)	2(0.5)	6(1.5)	33	50(8.9)	29(5.1)	21(3.7)	138
25-29	9(2.2)	6(1.5)	3(0.7)	200	47(8.3)	25(4.4)	22(3.9)	114
30-34	8(2.0)	5(1.3)	3(0.7)	167	80(14.2)	42(7.4)	38(6.7)	111
35-39	25(6.2)	11(2.7)	14(3.5)	79	45(8.0)	26(4.6)	19(3.4)	137
40-44	23(5.7)	12(3.0)	11(2.7)	109	19(3.4)	11(2.0)	8(1.4)	138
45-49	18(4.5)	5(1.3)	13(3.2)	39	31(5.5)	16(2.8)	15(2.7)	107
50-54	30(7.5)	14(3.5)	16(4.0)	88	25(4.4)	14(2.5)	11(2.0)	127
55-59	49(12.2)	24(6.0)	25(6.2)	96	35(6.2)	12(2.1)	23(4.1)	52
60-64	48(11.9)	25(6.2)	23(5.7)	109	30(5.3)	16(2.8)	14(2.5)	114
65-69	37(9.2)	17(4.2)	20(5.0)	85	9(1.6)	5(0.9)	4(0.7)	125
70-74	25(6.2)	15(3.7)	10(2.5)	150	28(5.0)	11(2.0)	17(3.0)	65
75-79	23(5.7)	15(3.7)	8(2.0)	188	-	-	-	-
80+	21(5.2)	5(1.2)	16(4.0)	31	-	-	-	-
합계	402(100)	191(47.5)	211(52.5)	95	564(100)	289(51.2)	275(48.8)	105

- 주: 1)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인구임.
 2) ()내의 숫자는 총인구에 대한 구성비임.
 3) 파주군 마을의 70-74세의 인구는 70세 이상 인구임.

자료: 1) 보은군 마을: 김태현 외(1996: 97).
 2) 파주군 마을: 김태현(1993a: 74).



자료: <표10> 참조.

<그림 1> 보은군 및 파주군의 농촌마을 인구구조

이와 같은 도시의 성격을 띤 인구구조의 특색이 나타나는 반면에, 농촌에서 발견되는 인구구조의 특징도 함께 발견된다. 즉, 5-9세(9.4%)나 55-59세(6.2%) 등에서 주위 연령계층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구성비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 일반적인 농촌인구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

도시근교 농촌이라고 모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근교 농촌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농촌인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1987년 조사한 근교농촌의 조사결과(김일철 외, 1988: 67)에 따르면 농촌 인구구조의 특징인 0-4세 유소년인구의 극소, 10-19세 청소년인구의 극대, 20-44세 청장년인구의 극소, 그리고 50세 이후의 노년인구의 상대적 비대 등의 인구구조가 뚜렷하였다.

그러나 파주군의 근교농촌마을의 인구구조는 5-9세와 45세 이후의 상대적 비대와 같은 1987년 자료에 나타난 근교농촌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면서 20-39세의 인구 집중현상은 신흥공업지역이나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연령층의 단기간내 전입증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문현상 외, 1989: 106-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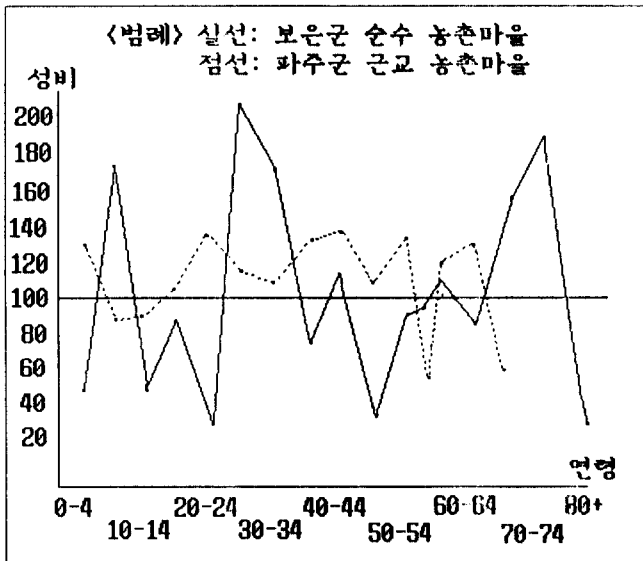
그러므로 파주군의 농촌마을 인구구조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전형적인 농촌의 인구구조의 특색을 지니고 있었으나 최근 젊은 연령층의 단기간내 전입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때의 인구구조는 농촌 인구구조에 젊은 층의 비대한 인구구조를 겹쳐 놓은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구구조는 도시화의 진행, 주거지로의 안정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두 가지 인구구조의 특징이 혼합되는 새로운 형태—기존도시의 인구구조에 가깝지만—의 안정된 인구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김태현, 1993a: 72-77 참조).

인구의 이동은 이동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젊은 연령층의 전입이나 전출이 잦고, 연령에 따라서는 성별이동의 차이도 나타난다. 성비는 출생시 105를 전후한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서 40 또는 50세 전후에서 100 정도에 이르러, 그 후에는 급속히 떨어진다. 그러나 농촌인구에서는 인구이동의 성별 차이로 연령별 성비는 일반적으로 20대와 60대(또는 70대)에서 성비가 아주 높게 나타난다. 20대에 성비가 높아지는 것은 농촌 여자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도시에서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의 도시전출이 남자들보다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농촌의 성비를 극도로 높게 끌어올리게 된다. 그 후 남자들이 취업이나 결혼 등의 목적으로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성비는 다시 낮아졌다가 60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또다시 높은 성비를 기록한다. 이때는 도시로 전출한 자녀들과 재결합하

는 때이며, 할아버지들 보다 할머니들이 도시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주의 기회가 많게 된다(김태현, 1993a: 79-81).

보은군과 파주군의 성별 인구구조는 위에서 기술한 농촌의 성비특성과 같이 두 연령계층에서 높은 성비를 보여주고 있다(〈표10〉 및 〈그림2〉 참조). 보은군의 순수 농촌마을에서는 연령별 성비의 차이가 컸으나 25-34세와 70-79세의 연령계층에서 성비의 극대가 뚜렷하였다. 한편 파주군의 근교농촌마을 인구는 20-24세와 60-69세에서 성비의 극대현상을 찾을 수 있으나 35-44세에서도 140에 가까운 성비를 보이고 있다. 이 연령층에 인구의 전입이 집중되었으며, 이 연령층의 혼인상태가 유배우 관계이면서 성비가 높은 것은 가족이 원래 거주하고 있는 곳에 있고, 공장의 이전 등에 따라 가구주만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성비의 변화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비교한 보은군의 순수농촌마을과 파주군의 근교농촌마을의 인구구조는 그 특성을 전혀 달리하고 있었다. 전자의 인구구조는 농촌의 일반적 특성을 지나 노령화현상이 극에 달하고, 가까운 장래에 마을 자체의 존속이 어려운 상태를 예측



자료: 〈표10〉의 자료 참조.

〈그림2〉 보은군과 파주군의 농촌마을 성비비교

하게 한다. 반면에 후자의 인구구조는 도시성을 띠는 인구구조의 특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이들 두 농촌마을의 인구구조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앞에서 논의했던 우리 나라 농촌지역(군부)의 인구구조의 변화(예를 들면 0-4세와 25-44세 인구구성비의 증가)와 시부에서 군부로 전입하는 이동인구 중 25-44세 인구구성비의 극대화과 같은 현상은 군부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인구이동이 쌍방으로 일어나는 근교농촌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은군의 순수농촌마을과 같이 농촌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지역의 인구는 계속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농촌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심화된다고 하겠다.

5. 요약 및 결론

농촌사회의 당면한 문제는 농촌인구의 극소와 잔존인구의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왜곡에서부터 제기되므로 농촌인구의 변화추세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농촌이동인구의 특성으로 최근 군부로의 전입과 전출인구를 비교하여 최근 농촌으로의 인구회귀현상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현재 농촌의 인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농촌마을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농촌으로의 전입인구의 영향을 밝혔고, 특성별 농촌마을의 장래를 예측하였다.

군부의 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는 뚜렷하였다. 도시로 인구전출이 지속되면서 젊은 연령층과 영유아의 인구구성비가 낮고 노인연령층이 두텁게 되었다. 0-4세 인구는 1970년에 총인구의 45.1%이던 것이 1995년에는 20.4%가 되었으며 앞으로 20% 아래로 낮아질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에 4.2%에서 11.9%로 상승하였다(〈표2〉 참조).

산업화 이전단계인 1960년 군부의 0-4세 인구구성비는 시부보다 높았으나 농촌인구의 도시전출이 누적되면서 1975년부터 시부보다 낮아져서 1990년까지 그 차가 커졌다. 그러나 1995년의 군부 0-4세 인구구성비가 6.2%로 5년 전보다 상승하여 시부와 차가 감소되었다(〈표3〉 참조). 이것은 농촌으로 전입하는 도시인구나 농촌에서 도시로 전출하는 인구특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시부에서 군부로 이동하는 인구의 연령별 구성에서 20-34세에 총이동인구의 51.8%

가 집중(〈표7〉 참조)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교육수준은 시부로의 전입인구보다 오히려 높았다(〈표8〉 참조). 이러한 사실은 군부인구의 변화를 예상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는 농촌사회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수농촌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은군의 농촌마을과 원래 농업중심 마을이었으나 최근에 급속히 변하고 있는 파주군의 근교농촌마을의 인구구조를 비교한 결과 최근의 농촌인구구조의 변화와 젊은 연령층의 군부로 전입하는 현상은 일부 농촌, 특히 근교농촌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지 전체 농촌인구현상의 변화라고 할 수 없었다. 이들 마을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마을인구구조의 특성에서 우리는 산업화나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농촌마을은 거주민의 노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어 마을 자체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반면에 근교마을은 농촌의 성격이 흐려지면서 도시화 내지 산업화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최근 군부 인구구조의 일부 변화나 군부 전입인구의 특성변화는 근교농촌마을과 같은 지역의 인구변화에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지 순수농촌마을로의 인구회귀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극히 일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하여 농촌으로 회귀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소하여 통계적 영향으로 나타날 정도는 아니었다.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각년도), <1960-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권태환(1992), "인구변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사회》 2: 39-56.
- _____·김두섭(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김태현·최진호(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 김일철·김태현 외(1988), <산지 및 산촌지역개발을 위한 발전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부·농업진흥공사.
- 김태현(1993a), "근교농촌의 인구 및 직업구조", 《근교농촌의 해체과정》(문옥표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1993b), "저출산수준과 강한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16(2): 1-23.
- _____ (1995), <자녀관과 경제사회발전-인구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_____ 외(1993),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통계청.
- 김태현·이창송(1995), <농촌마을(보은군 2개 마을)실태와 주민생활>,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_____ (1995), "도시와 농촌 인구회귀현상의 격차와 심화: 충북 인구현상의 변화(1960-1990)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5: 95-125.
- _____ (1996), "인구이동이 농촌마을의 인구와 가족변화에 미친 영향: 충북 보은군의 2개 마을 조사결과", 《사회과학연구》 창간호: 93-111,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문옥표·김태현 외(1993), <근교농촌의 해체과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문현상·한영자(1989), <수도권 인구집중과 생활권간 인구이동분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변용찬(1991), "농촌귀환이동",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문현상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은군(각년도), <각년도 보은군 통계연보>, 충청북도 보은군.
- 인구분야계획위원회(199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총량부문: 인구분야계획(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진호(1994), "한국의 인구이동 패턴변화와 수도권인구이동", 《한국인구학회지》 17(3): 1-20.
- 통계청(1992),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 통계청.
- _____ (1996),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속보>, 통계청.

파주군(각년도), <각년도 파주군 통계연보>, 경기도 파주군.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1), 《인구정책 3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영자(1991), “귀환이동의 사례연구”,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문헌상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Population, Korea, 1960~1995 : Population Composition and Internal Migration

Tai-Hun Kim

The rural problems which we are facing start from the extremely small sized population and the skewed population structure by age and sex. Thus we analyzed the change of the rural population. And we analyzed the recent return migration to the rural areas by comparing the recent in-migrants with out-migrants to rural areas. And by analyzing the rural village survey data which was to show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rural population, we found out the effects of the in-migrants to the rural areas and predicted the futures of rural villages by characteristics.

The changes of rural population composition by age was very clear. As the out-migrants towards cities carried on, the population composition of young children aged 0-4 years was low and the aged became thick.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0-4 years was 45.1% of the total population in 1970 and dropped down to 20.4% in 1995, which is predicted to become under 20% from now on. In the same period(1970-1995), the population aged 65 years and over rose from 4.2% to 11.9%.

In 1960, before industrialization,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0-4 years in rural areas was higher than that of cities. As the rural young population continuously moves to cities it became lower than that in urban areas from 1975 and the gap grew till 1990. But the proportion of rural population aged 0-4 years in 1995 became 6.2% and the gap reduced. We can say this is the change of the characteristics of in-migrants and out-migrants in the rural areas. Also considering the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by age group moving from urban to rural area in the late 1980s, 51.8% of the total migrants concentrates

upon age group of 20~34 years and these people's educational level was higher than that of out-migrants to urban areas. This fact predicted the changes of the rural population, and the results will turn out as a change in the rural society.

However, after comparing the population structure between the pure rural village of Boeun-gun and suburban village of Paju-gun which was an agriculture centered village but recently changed rapidly, the recent change of the rural population structure which the in-migrants to rural areas becomes younger is just a phenomenon in the suburban rural areas, not the change of the total rural areas in general.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structure of rural village from the field survey on these villages, we can see that in the pure rural villages without any effects from cities the residents are highly aged, whil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re making a progress in suburban villages.

Therefore, the recent partial change of the rural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change of characteristics of the in-migrants toward rural areas is effecting and being effected by the population change of areas like suburban rural villages. Although there are return migrants to rural areas to change their jobs into agriculture, this is too minor to appear as a statistic effect.

